

## 프로스트의 宗教\*

黃 東 奎

(영문과 교수)

### 1

왜고너(Hyatt H. Waggoner)가 『미국 시인들(American Poets)』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종교적인 요소는 미국시의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그 특성 뒤에는 퓨리탄 전통이 있을 것이다. 프로스트의 경우를 잠시 논외에 둔다고 하더라도, 엘리엇나 로버트 로우월처럼 종교가 시의 핵심이 된 일이 있는 시인을 이십세기 중반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엘리엇와 로우월은 둘 다 퓨리탄 전통과 반대 방향의 교파를 택했다. 엘리엇는 영국장교로 로우월은 캐톨릭으로(그의 경우는 중반의 중요한 한 때만이었지만) 개종을 했다. 당시 미국의 지배적인 新敎 전통에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의 종교적인 행적은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뚜렷하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는 것이다.

프로스트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스웨덴보리(Swedenborg)敎에 심취했던 어머니와 별로 열성적이지 않았던 조합교회신자(Congregationist)였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다. 아버지가 곧 별세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영향아래 자라게 된다. 그는 스웨덴보리敎徒로 세례를 받았고, 스웨덴보리교도로 자랐고, 스웨덴보리교회에서 결혼을 했다.<sup>1)</sup> 후에 그는 스웨덴보리 믿음을 버렸으나, 그렇다고 강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에 가본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문제는 프로스트 비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있다. 우선 프로스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시시피大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출판한 세 권의 논문집 『프로스트 : 백주년 기념 논문(Frost: Centennial Essays)』(1974, 1976, 1978)<sup>2)</sup>에서 첫 두 권에는 각각 독립 항목으로 종교가 취급되고 있고, 제 3권에서도 포스터(Chales H. Foster), 라이처트(Victor E. Reichert), 쿡(Reginald Cook) 등에 의해서 계속 그의 종교관이 추적되고 있다. 종교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의 논문들 예컨대 제 1권의 “방법과 이론”

\* 이 논문은 문교부의 해외파견 교수 논문으로 씌어졌음.

1) Kathryn Gibbs Harris, "Lyric Impulse: Bird and Other Voices," K.G. Harris ed. *Robert Frost* (Boston: G.K. Hall & Co., 1979), p.150.

2) Jac Tharpe et al ed. *Frost: Centennial Essays* (Jackson: University of Mississippi, 1974, 1976, 1978).

항목에 실린 워너(Stephen D. Warner)의 「개간지의 로버트 프로스트: 實體化를 위한 영혼의 모험(Robert Frost in the Clearing: The Risk of Spirit in Substantiation)」 같은 것도 종교항목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홀(Dorothy Judd Hall)은 후에 프로스트의 종교만을 주로 다룬 책 『로버트 프로스트: 믿음의 윤곽(*Robert Frost: Contours of Belief*)』(1984)를 내기도 한다. 그리고 블룸(Harold Bloom)이 현대비평총서(Modern Critical Views)의 하나로 편찬한 『프로스트(*Frost*)』(1986)의 서문 및 몇몇 논문에서도 프로스트의 종교는 계속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 생전에는 주로 그와 자연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다. 발년에 가서 트릴링(Lionel Trilling) 등이 프로스트의 시 표면 뒤에 숨어 있는 비극적이고 두려운 시인의 존재를 발견하고부터 차차 그와 종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기 시작했다. 라이넨(John F. Lynen)이 “완벽한 전원시”<sup>3)</sup>라고 평했던 「지시문(Directive)」이 후에 중요한 종교시로 취급 되는 것이 극명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스트를 종교와 묶는 힌은 어디에 있는가?

## 2

프로스트의 종교를 다루는 비평가들은 흔히 그의 첫 시집 『소년의 意思(*A Boy's Will*)』(1913)에 실려 있는 「태어나기 위한 시련(*The Trial by Existence*)」을 우선 중요한 예로 든다.<sup>4)</sup>

싸움터에서 전사한 가장 용맹한 자들도  
地上에서와 마찬가지로 天國에서도  
용기가 제일이라는 것을, 눈 뜨자마자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할 것이다.

Even the bravest that are slain  
Shall not dissemble their surprise  
On waking to find valor reign,  
Even as on earth, in paradise;<sup>5)</sup>

로 시작되는 이 시는 지상에서 겪어야 하는 온갖 고통을 미리 충분히 알고도 다시 태어남을 택하는 영혼들의 선택을 기리는 시이다. 일단 삶을 택해서 태어나면 천국에서의 일들, 그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그

3) John F. Lynen,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Yale Univ. Press, 1960), p.136.

4) Stephen D. Warner, "Robert Frost in the Clearing: The Risk of Spirit in Substantiation," *Frost: Centennial Essays*, Vol. 1, p.399; Ronald Bieganowsky, "Sense of Place and Religious, Consciousness," *Frost*, K.G. Harris ed., p.33. 등을 보라.

5) Text로는 Edward Connery Lathem, ed., *The Poetry of Robert Frost* (New York: Henry Hold and Co., 1969)를 썼다.

선택을 진정한 시련으로 만드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로 만드는 것이다.

페린(Laurence Perrine)은 이 시가 무엇보다도 자유의지에 대한 프로스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인간의 고통이 인간의 죄나 잘못된 행동때문만이 아니라는, 후에 『은총의 놀이마당(The Masque of Mercy)』의 주제가 되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sup>6)</sup>

그러나 페린 같은 해석에는 문제가 따른다. 카우(Joseph Kau)는 이 작품을 新플라톤主義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시라고 판단한다.<sup>7)</sup> 혼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며 전생의 행복을 있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新플라톤주의인 것이다. 여하튼 이 시를 기독교 교리 속에서 소화시키려는 노력은 무리일 것이다. 영혼이 천국에서 살다가 다시 자기 선택으로 지상에 태어난다는 교리는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예이츠의 「自我와 영혼의 대화(A Dialogue of Self and Soul)」에서 自我가 취하는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영혼이 자아를 초월적인 세계, 즉 천국으로 이끌고 가려는 데 대항해서 자아는 괴롭더라도 다시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 약을 먹고 전생의 행복한 상태를 있다는 이야기는 예이츠의 「국민학생들 사이에서(Among School Children)」의 제 5 연에 나온다. 전생의 문제가 제시된 부분이므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연은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낳을 아기가 늙어서 비참해지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겠느냐는 간단한 질문 속에, 문장 구조를 비틀어 가면서까지 태어날 때 전생의 지복(至福)을 잊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예이츠가 직접 노트를 붙인 이 부분은 신플라톤주의자 포르피리(Porphry)가 이야기의 근거임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은 신플라톤주의와 일치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전생의 복된 상태를 잊는다든가, 괴롭더라도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기독교와는 관계가 얽은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이 「태어나기 위한 시련」을<sup>8)</sup>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프로스트가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적인 시인이었다는 일관성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대로 이 작품은 기독교적인 교리와 거리가 먼 시인 것이다.

프로스트의 종교가 거론될 때 자주 예로 드는 시 가운데 「황량한 곳(Desert Places)」과 「意圖(Design)」가 있다. 둘 다 어두운 시들(dark poems)이다. 앞의 작품을 읽어 보자.

6) Laurence Perrine, "Robert Frost and the Idea of Immortality," *Frost: Centennial Essays*, Vol. 2, p. 91.

7) Joseph Kau, "'Trust...to go by contraries': Incarnation and the Paradox of Belief in the Poetry of Frost," *Frost: Centennial Essays*, Vol. 2, p.100.

8) James, L. Potter, *Robert Frost Handbook*(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0), p.7.

눈이 퍼붓고 밤이 급급히 다가 온다, 오  
 내가 지나가며 들여다 본 들판에.  
 바닥은 거의 눈에 골고루 덮여 있다.  
 잡풀과 구루터기 얼마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뿐.

둘리싸고 있는 숲들이 그 들판을 자기들 것으로 차지했다.  
 모든 동물은 동지와 굴 속에 숨어 숨죽이고 있다.  
 너무나 정신이 어쩔해서 세는 것도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이 나를 감싸버린다.

지금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은  
 언젠가 덜해지기 전에 더 짙어지리라  
 어둠에 덮인 눈의 저 공허한 흰 색  
 표정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텅빈 공간으로 날 겁주지 못할거다,  
 별과 별 사이의——인간이 없는 별들 위의.  
 그걸 너무 가까이 내 속에 가지고 있어서  
 나 자신 황량한 장소를 만들어 나를 겁줄 필요조차 없구나.

Snow falling and night falling fast, oh, fast  
 In a field I looked into going past,  
 And the ground almost covered smooth in snow,  
 But a few weeds and stubble showing fast.

The woods around it have it -- it is theirs.  
 All animals are smothered in their lairs.  
 I am too absent-spirited to count;  
 The loneliness includes me unawares.

And lonely as it is, that loneliness  
 Will be more lonely ere it will be less--  
 A blanker whiteness of benighted snow  
 With no expression, nothing to express.

They cannot scare me with their empty spaces  
 Between stars -- on stars where no human race is.  
 I have it in me so much nearer home  
 To scare myself with my own desert places.

제13행의 “자기들의 허공”에는 여러가지 해설이 있어 왔다. 우선 빠스콧의 “별과 별 사이의 무한한 공간이 나를 진을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널리 퍼진 說과 브룩스(Cleanth Brooks)와 워렌(Robert Penn Warren)의 “친문학자”<sup>9)</sup>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포와리에

9) Cleanth Brooks and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Henry Holt, 1938), pp.193-4.

(Richard Poirier)는 “엘리어트가 말하는 별과 별 사이의 빈 공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sup>10)</sup> 그런가 하면 프랭크(Albert J. von Frank)는 자연으로 보고 있다.<sup>11)</sup> 그 귀결이 무얼 뜻하는가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스트가 모호한 상태로 놓아 두었듯이 독자들의 자유에 맡겨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다만 빠스칼이나 엘리어트보다는 좀더 가까이(nearer home)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종교적인 관련아래 고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극한상황에서 멀어지려는 힘도 작용하고 있다. 즉 제10행의 “언젠가 덜해지기 전에”는 봄이와서 눈이 녹기 전에는 뜻으로 엘리어트나 로우월의 종교가인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봄이 오면 눈이 녹을 테니까 사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밤과 겨울이라는 극한 상황이 종교로의 전환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을 종교적인 시로 보기 힘든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스톤(Edward Stone)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엄숙한 어조로 시작해서 거의 우스꽝스러운 구어체로 끝나고”있는 것이다.<sup>12)</sup>

「意圖」는 격렬함과 절망과 공포면에 있어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의 공포의 소네트(terror sonnets)와 맞먹는<sup>13)</sup> 것으로 알려진 소네트이다. 흰 꿀벌 위에서 흰 거미가 흰 나방이를 잡아 먹게 한 것이 누구의 의도나, 神의 의도나, 붙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行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소름끼치는 암흑의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의도가 것처럼 작은 것에도 손을 댄다면.

What but design of darkness to appall?—

If design govern in a thing so small.

우주의 작용은 비인간적이고 공포스럽다. 그러나 위의 물음은 거의 해답에 가까운 것이다. 해답을 찾아 마음을 찢는 홉킨스의 공포의 소네트와는 절으로는 흡사할지 모르나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이다. 프로스트가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제임스(William James)의 神正論(theodicy)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일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神이 그 결과는 우주와 자연에 맡겼다는 생각,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혹은 종교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프로스트의 소네트 자체가 그 정교함으로 해서 신의 섭리의 일단을 암시한다고 하는 역설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10) Richard Poirier,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7), p.145.

11) Albert J. von Frank, “Nothing That Is: A Study of Frost’s ‘Desert Places,’” *Frost: Centennial Essays*, Vol. 1, p.126.

12) Edward Stone, “Other Desert Places,” *Frost: Centennial Essays*, Vol. 1, p.275.

13) Thomas McClanahan, “Frost’s Theodicy,” *Frost: Centennial Essays*, Vol. 2, p.113.

## 3

그러면 이제 프로스트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면 늘 중심을 이루는 두 놀이마당(maques)을 다루기로 하자. 이 두 劇은 “종교적”이라는 다른 시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도그마를 다루고 있고, 더구나 그 하나에는 神(God)이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 이 두 劇의 다른 등장인물들도 거의 모두가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마디만을 하지만 사탄(Satan)도 등장한다. 이년 간격으로(1945, 1947) 씌어진 이 두 작품은 1938년 아내가 죽은 후에 계속 닦쳐온 자녀들의 죽음 자살 정신이상 등의 고난의 흔적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첫 작품에 나오는 욥(Job)이 프로스트 자신의 체취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첫번째 劇 『理由의 놀이마당(A Masque of Reason)』(1945)은 구약성서의 正義(justice)가 과연 무엇이냐를 욥이 겪은 고통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 즉 욥은 神에게 자기가 당한 이유없는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대라고 요청한다. 神은 그 이유를 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이유를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유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神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간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규율은  
非理由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었오.

The discipline man needed most  
Was to learn his submission to unreason.

(line 209-10)

결국 욥은 神이 우주의 非正義 원칙(unjustice principle)을 확립하는데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용당했다는 극히 非宗教的일 수도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 비정의 원칙을 위해 당한 고난에 대한 보답은 무엇인가? 불멸성의 획득인가? 욥은 神에게 묻는다.

당신께서는 숨지 말고 그저 나오셔서  
인간의 어느 부분이 영원불멸한가 안한가  
내놓고 간단하게 말씀만 하시면 모든게 잘 될텐데.

You could end this by simply coming out  
And saying plainly and unequivocally  
Whether there's any part of man immortal.

(line 295-7)

그 물음은 칼빈主義 이후 문제되어온 숨어 있는 神(Deus Absconditas)에 대한 극히 인간적인 물음이었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욥의 부인은 즉시

神한테서는 아무런 답도 못 얻을꺼요.  
 You won't get any answers out of God.  
 (line 301)

라고 오히려 읊을 나무라고, 신 자신은

내 왕국, 이 무슨 소동이고!  
 My Kingdom, what an outbreak!  
 (line 302)

다고 한탄하며 읊의 물음을 회피한다. 그러자 읊의 부인이

읊 말이 맞아요.  
 당신의 왕국, 네, 당신의 왕국이 지상에 임하소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아무거랍니다까?

Job is night.  
 Your kingdom, yes, Your kingdom come on earth.  
 Pray tell me what does that mean? Anything?

그러나 神은 계속 회피하는 것이다.

한편 『은총의 놀이마당』은 신약성서의 은총(mercy)을 극적으로 해석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탄까지 나오는 앞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에는 神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시인 자신과 흡사한 점이 많은 책가게 주인(Keeper), 그의 또 하나의 분신이랄 수 있는 요나(Jonah), 주인의 부인 제시 벨(Jesse Bel) 그리고 그녀의 정신분석을 맡고 있는 폴(Paul)이 나온다. 폴은 두번씩이나(line 116, 361)

나는 하나님을 자비롭지 않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I can't trust God to be unmerciful.

라고 강조하지만, 결국 신의 은총이란 인간이 지은 죄나 실패를 용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상의 희생을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선물로 받아주는데 있다는 극히 실존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맨 마지막에 책가게 주인이 하는 말,

은총이 아니곤 그 무엇도 不義를 正義로 만들 수 없다.  
 Nothing can make injustice just but mercy.

도 기독교의 정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스토아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 있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두 극을 기독교적인 극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두 극 모두가 희극 가운데서도 웃음끼리 위주인 버얼레스크(burlesque)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장난, 우스개소리, 별로 의미없는 대꾸, 진지한 말들이 뒤섞여 있어서 종교적인 정신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찾아내더라도 그 진지성에는 의심이 가는 것이다. 우선 『理由의 놀이마당』에 나오는 神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존재이다. 그의 옥좌는 임시로 만든 구조물이고 극 도중에 무너지기도 한다. 그의 판단은 변덕스럽고 즉흥적이다. 읍은 좀 더 진지한 편이지만,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베이(André Obey, 1892~1975)의 잘 알려진 희극 『노아(Noé)』(1931)의 노아의 태도에서 그리 멀지가 않다. 예를 들어 노아의 말

하느님! 네 하나님! 집니다. 다시 괴롭히 드려  
죄송합니다. 키(舵)도 만들어야 합니까?

Lord! it is me. Very sorry  
to trouble you again. Should I make a rudder?<sup>14)</sup>

의 자세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읍의 아내 타이아티라(Thyatira)는 백탁에 맞지 않게 여성운동가(feminist)에 가까운 말을 하고, 왜 남자는 순교자가 되고 여자는 마녀로 불태움을 당하게 했느냐고 항의도 한다. 이름 타이아티라 자체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마녀들로 유명한 도시 이름인 것이다. 그리고 『은총의 놀이마당』에서는 별 필연성없이 요나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 두 극은 프로스트가 1916년에 쓴 최초의 희극 『탈출(A Way Out)』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理由의 놀이마당』이 프랑스의 전위극 『노아』와 시대적으로 뒤에서 연결되는 것과 달리, 이 극은 유럽의 1950년대 부조리극보다 훨씬 앞서서 부조리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이상한 극인데, 메시지의 불분명함에 있어서는 뒤의 두 극과도 체계를 같이 한다.

『탈출』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낯선 者”로 불리우는 쫓기는 살인자가 에이사 고릴(Asa Gorrill)이라는 뉴잉글랜드 지방 은둔자의 농장집에 들어온다. 그리고는 에이사에게 삶의 형편을 묻는다. 그리고는 둘이 서로 같은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경찰을 피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기 말을 따르라고 에이사에게 강요한다. 즉 앞마당에 나가는 일이나 달걀을 팔러 읍내에 나가는 일을 번갈아 하면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리라는 것이다. 즉 둘이 함께 에이사 고릴이 되는 것이다. 이 “합침”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낯선 자는 儀式을 행한다. 그가 은둔자 에이사의 여벌 옷을 입고 에이사의 음성과 몸짓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리고 합치기 위해 둘이 같이 춤을 추자고 강요한다. 춤을 추다가 둘이 같이 쓰러지자, 둘 다 상대방이 살인자이며 범인이라고 주장한다. 둘이 싸우다 하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하나가 그를 끌고 숲으로 들어간다. 경찰대가 갑자기 들이닥친다. 그러자 에이사, 혹은 에이사의 옷을 입은 살인자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서며 도망자가 도주했다고 말한다. 추적자들이 도망자를 찾아 떠나고 은둔자는 침

14) J.L. Styan, *Modern Drama in Theory and Practice*, Vol. 2 (Cambridge Univ. Press, 1981), p.100.



대에 들어간다.<sup>15)</sup>

부조리극의 성장 붕괴를 겪은 오늘날 시점에서 보자면 이 극은 영남없이 부조리극이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특이한 말투를 살리려는 노력을 잠시 제쳐두면, 이오네스코와 주네의 초기극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아다모프와 좀더 낡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둘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같이 춤을 추는 의식행위는 부조리극 작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장치이다. 부조리극이 대개 그렇듯이, 이 극에서도 누가 은둔자이고 누가 범인인지 확실치 않고, 또 한 사람이 죽었는지 잠시 기절 상태에 있는지도 확실치가 않은 것이다.

넓은 의미로 볼 때 『理由의 놀이마당』이나 『은총의 놀이마당』도 부조리극이라고 할 수가 있다.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없고, 인간의 부조리한 삶과 열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의 세 劇 모두가 유럽 부조리극 실행시기 보다 앞서 씌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조리극 수법 도입이 안됐지만, 전체적으로 부조리극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부조리극이 흔히 그렇듯이 종교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의 구원(salvation)에 대한 근원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가장 까다로운(perplexing) 종교적인 발언으로 알려진,<sup>16)</sup> 그의 후기 작품 「지시문(Directive)」을 읽어보기로 하자. 이 시는 “혼란을 넘어 다시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하여(whole again beyond confusion)” 인간이 자신의 길에서 “신성한 聖事的인 여행(sacramental journey)”을 하라는 권유로 홀(Dorothy Judd Hall)은 풀이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그 여행을 구체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버려진 동네의 한 무너진 집을 찾아가라는 권유로 되어 있다.

이제는 읍내가 아닌 읍내가 있고  
거기엔 농장이 아닌 농장이,  
그리고 이제는 집이 아닌 집이 있다.

There is a house that is no more a house  
Upon a farm that is no more a farm  
And in a town that is no more a town.

그 집은 講者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다. 그 집 혹은 읍내는 자연의 변화 속에, 이 경우는 거대한 빙하가 만들어 놓은 지형을 배경으로 해서 그 위치가 정해진다. 자연 속에 인간의 흔적으로 그 장소가 파악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면 뿌리를 찾아 구원을 얻는 시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sup>18)</sup>

15) 필자하고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이야기의 줄거리는 James K. Guimond, "A Way Out: Pastoral Psychodrama," *Robert Frost*, ed. K.G. Harris, pp.135-6를 참조했음.

16) Dorothy Judd Hall, *Robert Frost: Contours of Belief*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4), p.107.

17) *Ibid.*, p.107-8.

18) 이렇게 본 대표적인 글로는 물론 Dorothy Judd Hall의 *The Contour of Belief*가 있으나, 그밖

물가에 있는 늙은 삼나무의  
 아취형 발등 속에 罍杯처럼  
 깨진 곱있는 잔 하나를 감춰두었다.  
 聖마가께서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하신 것처럼  
 잘못된 사람이 그걸 찾아내 구원받지 못하도록, 呪文과 함께.  
 (나는 그 잔을 아이들의 놀이집에서 훔쳤다.)  
 여기 그대의 물이 있고, 물티가 있다.  
 마시고, 혼란을 넘어 다시 온전하게 되라.

I have kept hidden in the instep arch  
 Of an old cedar at the water side  
 A broken drinking goblet like the Grail  
 Under a spell so the wrong ones can't find it,  
 So can't saved, as Saint Mark says they mustn't.  
 (I stole the goblet from the children's playhouse.)  
 Here are your waters and your watering place.  
 Drink and be whole again beyond confusion.

그리고 거기에는 일종의 成人式같은 감정적인 고뇌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기독교적인 시로 보는데도 문제점이 많다. 켈프(John C. Kemp)가 지적한대로 이 시는 기독교적인 상징과 성서 인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트의 앞선 작품들보다 깊이가 없는 작품이다.<sup>19)</sup> 우선 話者는 독자가 길을 잃기를 바란다.

마음 속으로 그대가 길을 잃기만 바라는  
 안내원에게 안내시키게 한다면  
 If you'll let a guide direct you  
 Who only has at heart your getting lost.

이 빈 동네로 가는 안내원을 화자 이외에 다른 존재로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화자가 독자들이 길을 잃기만 바랄 때, 벌써 우리는 이 시가 종교적인, 특히 기독교적인,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리(Sydney Lea)가 이 작품을 워즈워스의 『마이클(Michael)』과 비교하는 자리에서 이 시를 변덕스럽다(whimsy)라고 판단한 것에도<sup>20)</sup>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변덕스러움을 이길 더 큰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종교적인 작품으로 취급하기 힘들 것

에도 David Alan Sanders의 "Revelation as Child's Play in Frost's 'Directive,'" *Frost: Centennial Essays*, Vol. 2, pp.267-77 등이 있다.

19) John C. Kemp, *Robert Frost and New England: The Poet as Regionalist* (Princeton Univ. Press, 1979), p.218.

20) Sydney Lea, "From Sublime to Rigamarole: Relations of Frost and Wordsworth," *Robert Frost*,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p.98.

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니치(George W. Nitchie)가 지적한대로 이 시에는 두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로 우리가 되돌아 가보도록 권유받는 세계는 원래 거기 있었던 뉴잉글랜드의 삶을 감상적으로 왜곡시킨 세계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화자가 가보라고 권유하는 곳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개울이며, 그것은 뒤집어 말해서, 프로스트가 오히려 예전의 뉴잉글랜드와 자신과의 유대를 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sup>21)</sup>

마지막으로, 종교와 관련해서 거론되곤 하는 「키티 hawk(Kitty Hawk)」은 마지막 시집 『개간지에서(In the Clearing)』에 실린 작품으로 라이트 형제의 날으려는 모험심을 비유로 해서 「태어나기 위한 시련」의 용기를 구체화한 시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이 작품에는 성공하기 이전의 시인 프로스트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육체화하는 모험”은 종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대로 그것은 新플라톤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프로스트는 바로 그 시 앞에 제목이 따로 없는 2行詩를 실었다.

주어, 당신에 대한 제 조그만 농담을 용서하소서  
그러면 지에 대한 당신의 엄청난게 큰 농담을 용서하겠습니다.

Forgive, O Lord, my little jokes on thee  
And I'll forgive Thy greak big one on me.

프로스트처럼 처음부터 시집 속의 시의 배열에 관심을 보인 시인이 위의 거의 신성모독적인 작품을 「키티 hawk」 바로 앞에 놓았다는 사실은 「키티 hawk」를 너무 심오한 종교시로 보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프로스트의 시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인 것으로 알려진 시 몇 편과 劇 두 편을 살펴보고, 그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특히 기독교적인,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종교는 프로스트 시세계 탐구를 위한 중요한 참조항의 하나가 되었고, 그 경향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 적어도 자연과의 연관보다는 더 큰 연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 4

地上 생활의 소외감, 불안 불만이 반드시 종교의 출발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풍족하

21) George W. Nitchie, "Robert Frost: The Imperfect Guru," *Frost: Centennial Essays*, Vol. 1, p. 47.

고 유감이 없는 삶보다는 좀더 종교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삶의 편안함을 뛰어난 종교사에서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불안, 소외, 의혹, 광증 같은 것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지상생활의 만족도를 잭 자(尺)들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우선 가정과 직장을 중요 척도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로스트 작품에 나오는 가정을 살펴보자.

겉보기와는 달리 프로스트의 가정을 살펴보면 살필수록 삶의 聖域이라기 보다는 대단히 복잡하고 곤혹스러운 곳으로 자주 나타난다. 특히 독백체나 대화체들의 시들이 그런데, 그때 가정은 거의 지옥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불안 묘지(Home Burial)」를 예로 들어 보자. 처음부터 기조는 두려움이다.

아내가 자기를 보기 전에 그는 칭제 밑에서  
아내를 보았다. 그녀는 어깨 너머로 등 뒤로  
무엇인가 두려운 것을 보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He saw her from the bottom of the stairs  
Before she saw him. She was starting down  
Looking back over her shoulder at some fear.

그 두려움은 틀에 만든 아들의 무덤이다. 매장할 때의 남편의 인내를 무관심이라고 판단한 아내나, 아내의 지나친 슬픔과 비판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은 둘 다 가정이라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죄책감이 병적인 것으로 된 아내를 이끌어 낼 희망은 시 끝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다.

「언덕집 여자(The Hill Wife)」도 마찬가지이다. 짧은 시 다섯편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소외와 불만의 이미지도 차 있다. 아이가 없고 가난한 이 부부에게 꿈조차 두렵다. 아내는 점점 마음의 집중을 잃어가고, 결국 집에서 도망가서 죽는다. 이 부부의 가정도 안식처이기커녕 인간의 정신이 부서지는 장소인 것이다.

「종이 종들에게(A Servant to Servants)」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자연과의 친화 속에서나마 삶을 견디려고 애쓰다가 결국 미치는 아내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이 「종이 종들에게」의 비참한 자포자기 상태가, 이 시가 실린 프로스트의 대표적인 시집인 『보스톤 북쪽(North of Boston)』의 지배적인 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sup>22)</sup> 가정 혹은 집이 프로스트의 시에서 얼마나 억압적인 존재인가를 다시금 보여준다. 대표적인 극적 독백의 하나인 「코오의 마녀(The Witch of Coös)」도 예외가 아니다. 남편이 질투로 살해한 옛 애인의 시체를 다락에 감추고 남편이 사망한 후까지 환상 속에서 사는 여자의 고통스럽고 광적인 가정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가정이 안식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하는 장소인 직장은 어떤가? 그의 작품의 상

22) John C. Kemp, p.125.

당수가 뉴잉글랜드 지방 농민의 생활로 되어 있고, 그 생활은 언뜻 보기에 목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점만 벗기면 그 삶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보이는 것이다. 대학교수로 삶을 지탱하며 프로스트는 농장생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곤 했지만, 톰슨(Lawrence Thompson)의 『프로스트 傳記』의 중간 부분을 읽어본 사람이면 그 찬양의 양면성, 즉 전원생활에 끌리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마음의 상태를 간파하기 힘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프로스트의 첫번째 劇 『탈출』을 전원생활의 소외상태에 대한 프로스트의 반응으로 파악한 기몬드의 「탈출: 전원의 심리극(A Way Out: Pastoral Psychodrama)」가 극 자체를 너무 사실주의 극으로 취급한 흠은 있지만 프로스트가 바라는 전원생활의 공허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23)</sup>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스트와 자연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원래 프로스트는 자연시인으로 불리워 왔다. 그만큼 그의 시에는 현대시인답지 않게 자연을 소재로 한 시가 많다. 『詩全集(Collected Poems)』 제일 앞에 실린 「목장(The Pasture)」부터 『개간지에서』까지 거의 모두가 자연과 직접 만나거나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연은 언뜻 보기에 인간의 애정을 받고 되돌려주는 그런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을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존재로 파악하려 한 낭만주의자들이나(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에서 문명에 대치되는 어떤 상징을 발견하려 한(무관심한 경우가 많지만) 모더니스트와는 다른 자연관을 발견하게 된다. 프로스트는 자연에 계속 끌리면서도, 끝내 자연에 몰입하지 못하고 되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되돌아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작더미(The Wood-Pile)」를 살펴보자. 이 시도 그의 다른 시처럼 자연을 향해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젯빛으로 흐린 어느날 얼어붙은 늪을 건다가  
 멈춰서서 생각했다. “여기서 돌아서자.  
 아니, 좀더 멀리 가보자. 그러자.”

Out walking in the frozen swamp one gray day,  
 I paused and said, “I will turn back from here.  
 No, I will go on farther—and we shall see.”

화자는 걷기 힘들만큼 눈썹인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눈 속에 모두 모습이 비슷해 어떤 장소에 이름을 붙이기도 힘든 그런 세계이다. 세 한 마리가 앞서 날으며 좀 더 깊이 들어오라고 유혹도 한다. 그때 화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고 잊고 가버린 장작더미를 발견한다. 되돌아선다는 말은 없지만 상황으로 보아 화자는 틀림없이 거기서 되돌아선다.

프로스트의 인물들은 결코 자연 속에 몰입하지 않는다. 때로 자연은 話者의 內的 고뇌에

23) James K. Guimond, *Robert Frost*, ed. K.G. Harris, p.133-141.

대한 투사로 작용하기까지 한다. 「장작덤이」도 그 예의 하나일 것이다. 「장작덤이」와 다른 상황 「들어오라(Come In)」에서도 자연은 아름답지만 화자가 몰입하지 않는다. 아니, 자연이 아무리 신비롭고 아름답더라도 프로스트의 인물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도시가 아니고 대개 마을이지만)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 「눈내리는 저녁 숲 가에 마차를 멈추고(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도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면

숲은 사랑스럽고, 그윽하고, 깊다.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이라는 이끝림이 묘사된다. 그러나 그의 話者는 곧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되뇌이며 마을로 가는 것이다.

자연으로 가다가 (「자작나무(Birches)」에서처럼 하늘로 가다가), 마을(인간이 사는 곳, 땅)로 되돌아오는 패턴은 첫 시집 『소년의 意思(A Boy's Will)』 제일 앞에 실린 「나 자신 속으로(Into My Own)」 이래 계속되는 주제이다. 그 되돌아옴 때문에 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길은 프로스트 시에 자주 나오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어떤 계기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이다.<sup>24)</sup> 모든 것이 가는 도상에 존재하고, 계시가 있기 전에 일상 생활로 되돌아오는 장소가 될 뿐인 것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프로스트의 화자들은 항상 경계에서 멈춘다는 사실이다.<sup>25)</sup> 이 경계야말로 앞서 살펴본 안식처가 못되는 가정, 대체로 불만스러운 직업(vocation)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 한계가 프로스트의 시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5

프로스트의 시 자체가 종교 특히 기독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세계관이 강력하게 종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의 시는 종교적인 각광을 계속 받는가? 그의 反宗教的인 발언 가운데는 1961년 7월 3일에 강연한 다음과 같은 귀절도 있다. “신화보다는 과학에서 우리 삶을 인도할,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 신화라면 성경,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다른 신화이다.”<sup>26)</sup> 이런 단정적인 거부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가 종교적인 시인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또 하나의 반증을 들자

24) Robert Pack, “Frost's Enigmatic Reserve: The Poet as Teacher and Preacher, *Robert Frost*, ed. H. Bloom, p.6.

25) Philip L. Gerber, “Bound Away—And Back Again,” *Robert Frost*, K.G. Harris ed., p.66.

26) Redinald L. Cook, *Robert Frost: A Living Voice* (Amhu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4), p.176.

면 그의 시에는 기적(miracle)이 존재한 틈이 없다는 사실도 첨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몰입할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자연을 설정한 것 자체가 종교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종교의 출발이 인간의 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한계는 때로 사막의 입구나 뚫기 힘든 靈山의 초입으로 상징을 얻기도 한다. 프로스트의 자연이 바로 그 사막이나 靈山の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그 자연 건너편에는 편안한 삶 혹은 가정(혹은 직장)의 안식과 단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와리에(Richard Poirier)가 지적한대로 광증의 감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sup>27)</sup>

그리고 프로스트의 시에는 그 사막을 뚫고 지나가거나 靈山을 넘어가지 못하는 者의 열망이 항상 들어 있다. 그의 시 열 편 가운데 적어도 한 편에 별이 등장하거나 별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 것은<sup>28)</sup>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는 종교시인은 아니다. 그러나 삶 자체의 무의미(home), 불만스러운 천직에의 유혹(farm life), 자연에의 끌림(lovely, dark, and deep), 그러나 그 入口에서 막힘, 되돌아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는 열망, 그것들이 그를 종교적인 시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Works Cited

- Bloom, Harold, ed. *Robert Frost*.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 Brooks, Cleanth and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Henry Holt, 1938.
- Cook, Reginald L. *Robert Frost: A Living Voice*. Amhu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es Press, 1974.
- Hall, Dorothy Judd. *Robert Frost: Contours of Belief*.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4.
- Harris, Kathryn Gibbs, ed. *Robert Frost*. Boston: G.K. Hall & Co., 1979.
- Kemp, John C. *Robert and New England: The Poet as Regionali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Lathem, Edward Connery. *The Poetry of Robert Frost: The Collected Poems*. New York: Henry and Holt, 1969.
- Lynen, John F.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Yale University Press, 1960.
- Poirier, Richard.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27) Richard Poirier, p.113.

28) *Ibid.*, p.300.

- Potter, James L. *Robert Frost Handbook*.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80.
- Styan, J.L. *Modern Drama in Theory and Practice Vol.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Tharpe et al., ed. *Frost: Centennial Essays in 3 Vols*. Jackson, Miss: University of Mississippi Press, 1974, 1976, 1978.

### Abstract

## Frost's Religion

Hwang Tong-gyu

Religion in Frost's poetry has been treated as a matter of secondary importance, because of the dominance of nature in his poems. But religion, or religious nature, of his poetry has steadily attracted attention since 1960's.

If we examine his works, however, we cannot find any definite evidence of the doctrine of Christianity or any doctrine of belief. The miracle, one of the most conspicuous features of religion, has no place in his work. Instead Neo-Platonism or Stoicism are the cores of his "religious" masques and "terrible" poems.

His tragic "homes" and unsatisfactory "vocations," however, form a basis of religion. And his unpenetrable "nature" is presented as a condition of religion. In this sense only he can be called an essentially "religious" poet.